

#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절충주의 연구

배정민\* · 김영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현대는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이며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화하는 Post-modernism 양식이 지배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복식도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공존하게 되었고 과거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결합, 동·서양문화의 결합,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결합 등 상반되는 개념들이 혼합·절충되어 패션에 다양성을 부여해 주었다. 문화적 다원주의와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한 흐름으로 급부상하여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절충주의 현상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는 연구적 가치가 높다고 사려되며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적이며 절충주의적인 영국 패션을 세계에 알렸으며, 패션계에 폭넓은 문화와 스타일을 수용시키는데 기여한 디자이너인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통해 다원적 절충주의(plural eclecticism)의 선례를 연구하고 20세기 이후 다원성과 함께 절충주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다원적 절충주의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서적 및 선행 연구와 패션 정보지에서 기사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의 사례를 시간적 절충주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다원적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인 시간적 절충주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Vivienne Westwood는 주로 시간적 절충주의인 역사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80년대 이후 Mini-Crini Collection을 통해 Crinoline 시대의 과도하게 퍼진 스커트를 과격적으로 짧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역사의 다양한 부분에서 절충을 시도했다. 때로는 남성복에서 또 때로는 화류계의 여자로부터 또한 공예품이나 왕실의 드레스에서까지 시간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을 넘나들면 역사의 현대화를 시도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Vivienne Westwood 작품에서 보이는 공간적 절충주의인 에스닉은 인디언에서 영감을 얻거나 열대지방 부두교에서 이름을 차용한 초기 Collection 테마 등에서 보인다. 90년대 이후 에스닉 트렌드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된 경향은 아니며 작은 아이템의 사용에서 에스닉적인 요소가 미미하게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나는 상황적 절충주의인 인프라 패션은 상황적 절충주의와 함께 역사적 절충주의도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매번 Collection 마다 등장하는 코르셋은 해리스 트워드Collection 이후 단순한 디자인, 18세기 문양으로 재해석되거나 그림이 프린트되어 등장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모든 문화는 문명의 세계화에 따라 그 문화의 차이, 다양성, 다원주의에 의해 절충주의적 형식을 띠고 있으며 혼혈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트렌드와 스타일의 슈퍼마켓 안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영국의 전통을 현대화하는 다원적 절충주의 경향을 과격적으로 표현한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경향에서 드러나는 다원적 절충주의의 선도적인 의의를 입증하였다.